

광양3개 지역업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 수상

광양시는 최근 '2022년 전라남도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원창, ㈜유니테크, 엑셀로(주) 등 3개 지역업체가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군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22개 시·군 단체장,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일자리 경제 투자유치 유공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20개 기업체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3개 업체는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박종태 투자일자리과장은 "광양시 지역업체가 일자리 우수기업을 수상해 기쁘다"며, "광양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주시는 기업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성 벌교초교 학부모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눈길'

보성군 벌교읍은 지난 19일 벌교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바자회 수익금 1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벌교초등학교(교장 김인옥)와 학부모회(회장 박다영)는 지난 11월 28일 교내 강당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등을 모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벌교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벌교초등학교 김인옥 교장은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도 나눔의 가치를 알고 이타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박다영 학부모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남규 벌교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학부모회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시는 정성과 온정을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벌교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해도 학생들과 함께 바자회를 통해 7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이밖에도 꿈이있는교회에서 박우철 목사와 성도들이 50만 원, 벌교여성 자원봉사회(회장 김미숙) 회원들이 2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구례, 국가공인 제1호 치유농업사 합격자 배출

'지리산과 하나되기' 강승호 대표... 특색 반영한 치유 노력

구례군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에서 구례군 국가공인 제1호 치유농업사가 배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에 합격한 강승호 '지리산과 하나되기'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강승호 대표는 "구례군은 지리산과 섬진강 등 생태자원, 국가 농업 유산 자원인 산수유, 기타 야생화 등 다양한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치유 프로그램



를 개발해 도시민의 자연 친화적인 삶과 건강,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강승호 대표가 운영하는 지리산과 하나되기 농원은 치유 농장과 치유 카페로 구성됐다.

박근규 구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례의 치유농업사 배출을 통해 구례가 보유한 정경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인 치유농업의 생태계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치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1조1933억원 의결

의결위, 35건 총 48억3200만원 삭감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1조1933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모두 35건에 48억3천2백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 철 동상 타당성 조사 3억원, ▲문화예술진흥계획, 문화예술재단 설립, 문화원 건립 등 용역 1억5천8백만원,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6천만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복원 10억8천만원, ▲망덕포구 카페

거리·푸드트럭 및 주전부리존 조성 3억5천3백만원,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음식콘텐츠 용역 5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복지재단 출연금은 최소경비를 제외한 99백만원, ▲군도6호선(옥룡 옥곡-옥곡 수평)개설공사 용역 1억4천만원, ▲군도11호선(굴박스~삼정지)구간 확장 공사 용역 1억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을 의결에 따른 부대

의견으로 내놨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이순신 장군 철 동상 타당성 용역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PPT를 활용한 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국장으로부터 최종 설명을 듣는 등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송재천 예결위위원장은 "고급리,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 2023년도 본예산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 '일류플래너' 1기 수료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시민홍보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찾아가는 시민홍보를 위해 모집한 '일류플래너' 1기의 수료식이 20일 교육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일류플래너는 박람회 개최 전에

찾아가는 시민홍보와 시민운동 참여, 박람회 기간에는 경관정원 등 도심권 정원박람회장을 비롯해 순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

지 3개월간 스피치 교육을 포함해 박람회장 조성 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고, 총 18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은 그간의 교육 및 활동 영상 상영, 정원박람회 홍보 시연, 수료증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한 교육생은 "1기 일류플래너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교육을 수료한 만큼 2023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박람회 홍보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도시 차량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일류플래너 여러분들이 시민운동을 비롯한 박람회 붐 조성 및 도심 안내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순천, 가족친화기관 3회 연속 재인증

임신·출산·자녀양육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순천시는 여성 가족부로부터 '2022년도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은 지난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3회 연속 재인증이며, 효력은 2025년 11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과 유연근무 등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검증 분야는 ▲부서별 정시퇴근의 날 운영 ▲직원 유연근무제 활용

화 ▲직원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 지원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시행 ▲배우자 출산 휴가 장려 등으로 3회 연속 재인증은 순천시가 그동안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 쾌거이다.

한편 순천시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21개소(공공기관 3, 중소기업 18)로 순천시, 전남신용보증재단, (재)전남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으로서는 부경산업개발(주)의 17개소로 브루웍스, 남도수산, 유네크가 2022년 신규인증을 받았다.

/순천=조순익 기자

곡성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유관기관 간담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관리체계 확대 등 안전망 구축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9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관리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증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곡성군의 다양한 치매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비롯해 치매 업무협약을 맺은 곡성사

랑병원, 곡성치유의숲, 곡성택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위해 자문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곡성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다양한 사회주체를 동참시켜 치매 관리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관기관들 역시 지역사회 내 총출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곡성=황상연 기자

보성군 다향아트밸리, 24일 '추억의 디너쇼'

전화 예약 접수 시작

보성군은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다향아트밸리 전시판매동 2층(녹차로 783)에서 '추억의 디너쇼! 쇼! 쇼! 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성군 다향아트밸리 개장 1주년을 기념하고, 차문화경과 보성의 대표 소리꾼 이윤아(보성아리랑예술단)가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2인 이상부터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행사장소가 실내임을 감안해 안전한 만찬요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퀴즈와 게임을 통해 풍성한 상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제공되는 만찬은 최고급 우전 녹차와 홍차, 다과가 전채요

리로 제공되며, 훈육 속성으로 육즙을 담아 솟살향이 밴 녹돈갈비가 메인 요리로 서빙된다. 마지막은 3색 재료의 달콤한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디저트로 구성된다.

축하공연으로는 대표곡 '당돌한 여자', '쓰러집니다'로 전 세대에 걸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서주경과 보성의 대표 소리꾼 이윤아(보성아리랑예술단)가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2인 이상부터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행사장소가 실내임을 감안해 안전한 만찬요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퀴즈와 게임을 통해 풍성한 상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제공되는 만찬은 최고급 우전 녹차와 홍차, 다과가 전채요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
구매 문의 ☎ 061)780-8294